



국립군산대, 제주 국토대장정 '한 걸음 한 걸음'

국립군산대학교는 16일 학생 42명이 제주도 일대 국토대장정의 여정을 이어가며,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을 탐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대장정에는 국립군산대 총동문회 회원 2명과 재학생 42명, 인솔직원 및 안전요원 9명을 포함한 총 53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지난 14일 화북포구를 시작으로 18일 제주을 레길 14코스의 협재해수욕장까지 총 4박 5일간의 일정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돌아오는 5일 차를 제외, 하루평균 25km를 걸으며 제주도의 자연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있다.

국립군산대 임기욱 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현장에 직접 참여해 학생들과 함께 행군에 나서 "여름철 더위 속에서도 학생들이 선후배 간에 땀을 흘리며 좋은 경험을 쌓고 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느낀다"고 격려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진북동, 혼다모터사이클 전주점 '착한가게' 현판식

전주시 진북동(동장 조배수)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종희)는 지난 15일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동참한 진북동 소재 혼다모터사이클 전주점대표 이해규에 사랑의 열매 '착한가게' 현판식을 갖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사랑의 열매 '착한가게'는 매달 3만 원 이상 기부하여 우리 동네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게 나눔을 실천하는 사업장으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착한가게' 인증현판을 지원하며, '착한가게'를 통해 모금된 성금은 관내 복지시설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활용된다.

이해규 혼다모터사이클 전주점 대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작은 나눔이지만 소외된 이웃을 위해 의미 있게 쓰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김제지봉센터, 청소년과 어르신 이미용 등 봉사활동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남궁행원)와 덕암정보교(교장 이형승)가 16일 관내 주간보호센터 및 요양병원에 방문해 이미용 봉사단 '제니맨 가위' 학생들과 함께 어르신들을 위한 이미용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덕암정보교 '제니맨 가위' 소속 이·미용 전공 학생들과 교사 20여명이 함께 참여해 헤어커트와 염색 봉사뿐만 아니라 장수사진도 함께 진행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무주자봉센터, 온정을 나르는 행복밥차 운영

(사)무주자봉지원봉사센터(이사장 이강우)는 지난 6월 5일 실천면을 시작으로 한 '온정을 나르는 행복밥차'가 지역어르신들에게 찾아가는 건강한 먹거리와 문화공연이 함께하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함께 봉사자와 지역어르신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센터 대표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5년도 행복밥차 운행은 실천면 무풍면, 적상면, 안성면, 부남면, 무주읍을 끝으로 7월까지 6개읍면을 순회봉사 운영하였으며 지역의 자생봉사단과 여성단체(회장 마경옥) 회원들이 함께하고 있으며 실천면은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헌) 직원들의 참여로 지역주민들과의 화합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이바지하고 있다. /무주=전문성 기자

학생 주도의 창의 융합 교육의 장

부안 남주중, 제8회 학술제 성황리 마무리

전북 부안에 위치한 남주중학교(교장 임용태)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남주인'을 주제로 제8회 학술제를 성공적으로 열었다. 이번 학술제는 학생들이 주도적 탐구와 협업을 바탕으로 구성된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창의성과 세계 시민의식을 동시에 함양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번 학술제는 단순한 발표회 형식을 넘어서,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각 교과와 자유학기 활동에서 탐구한 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하고, 서로의 지식을 나누는 '배움장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총 19개의 부스가 강당에 설치되어 학생들은 직접 주제 선정부터 자료 조사, 발표 준비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였다.



특히 공정무역, 식품첨가물 실험, 갯벌 생태계 탐구, 천문 관측, 머신러닝 체험 등 학생들의 흥미와 학문적 깊이를 동시에 고려한 주제들이 눈길을 끌었다.

또한 '교과 탐구 한마당'에서는 교과 간 융합 프로젝트 활동이 진행되어, AI 로봇 축구대회, 평화와 전쟁에 관한 사회 토론, 고무동력 플라이잉 실험 등 실제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체험 중심 수업이 운영됐다. 여기에 더해, 작가 이다혜와의 만남, 세계 시민 특강, 진로 매직 콘서트, 선배와의 멘토링 등 진로 및 인성 교육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부안=김석진기자

전북대병원, 2025 세계알레르기주간 캠페인 성료

지역민 400여명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법 교육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지역민 약 400여명을 대상으로 알레르기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예방관리법을 안내하는 '2025 세계알레르기주간(World Allergy Week) 행사'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하나필라시스, 알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전북대병원 권역호흡기센터와 전북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센터장 김소피),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전북지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세계알레르기기구(WAO)에서 선정한 올해 주제인 '하나필라시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알레르기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예방관리법을 교육하기 위해 전북대병원, 전주우편집중국, 진안군보건소에서 △하나필라시스 제대로 알기 캠페인 △착한가게는 세계알레르기주간 캠페인(완주, 진안) △알레르기 피부단자 검사 △알레르기질환 바로 알기 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코너들이 진행됐다.

또한 지역민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피부단자 검사를 실시,



알레르기 원인물질 8종에 대한 피부 반응 결과를 전북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전문의들에게 상담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됐다.

'하나필라시스'는 알레르기 원인물질(식품, 약물, 곤충독 등)에 노출된 후 갑자기 발생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어 하나필라시스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응급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오상근 기자

전주대 한식조리학과, 어린이 건강한 식습관 혁신 이끌어

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는 어린이 요리교실과 팜투 테이블 강의를 통해 지역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16일 전주대에 따르면 이 교육은 농장을 방문해 식재료를 관찰하고 수확하며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보는 팜투 테이블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조리법 해보는 어린이 요리교실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식재료를 이해하고 조리활동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또한, 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맞춤형 어린이 조리 교육을 운영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온라인으로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을 병행한다.

교육을 수료한 전문 인력은 한국 식문화 교육협회 아동요리 지도사 자격증과 전주대학교 총장명의로의 수료증이 제공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음식을 통해 아동요리 지도의 방법을



학습하고 인문학 강의를 통해 마음다스림 및 치유의 과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문성 기자



씨앗인회 진안지회, 진안군에 여름나기 물품 전달

진안군은 16일 씨앗인회(진안지회장 강규남)에서 200만원 상당의 아이스 쿨링패드 나눔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씨앗인회는 2023년에 회원 40명이 결성된 봉사단체로 매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물품을 후원하고 있다. 올해도 폭염으로 지친 취약계층 세대가 시원한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쿨링패드를 후원했다.

전달된 후원물품은 관내 독거 노인가구 등 취약 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강규남 지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준성 군수는 "무더위에 취약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진안=유태만 기자



순창군-남해군 공무원노조, 고향사랑 상호기부

순창군은 16일 전국지자체 공무원직본부 소속 순창군지부(지부장 홍영기)와 남해군지부(지부장 이장근)가 양 지자체 간 우호 교류 증진과 상생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300만 원씩 상호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양 자부 간의 지속적인 교류에서 비롯됐다. 순창군지부 공무원노조 간부들은 2025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맞아 지난 3월 남해군에서 1박 2일 간부수련회를 개최했으며, 이에 화답해 남해군지부 공무원노조 간부들도 최근 순창군을 방문해 간부수련회를 진행하며 우의를 다졌다.

이장근 남해군지부장은 "조합원들의 마음을 모아 순창군에 응원의 뜻을 전했다"면서 "앞으로도 순창군과의 연대를 이어가며 지속적인 협력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뜻깊은 상호 기부에 동참해주신 이장근 지부장님과 남해군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화답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보건소, 어르신 건강 돌봄 강화

남원시 보건소는 요실금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비 지원과 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 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관계자에 의하면 요실금금은 노년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환이자,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소변이 새어 나오는 증상으로 인해 위생적·사회적 불편을 초래하는 심각한 질환이다.

요실금 의료비 지원사업은 60세 이상 요실금 진단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이 대상이며,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등 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다. 단, 긴급복지의료지원 또는 실손보험금 등 타 기관 중복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또한 요실금 의료기기 대여는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3개월간 무료로 대여할 수 있으며, 대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 및 보건지소로 사전 문의 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여성새일센터, 노인돌봄 전문가 과정 수료식

남원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16일, 올해 마지막으로 2025년 직업교육훈련 맞춤형 노인돌봄전문가 과정 수료식을 가졌다.

맞춤형 노인돌봄전문가 과정에서는 노인복지 현장에서 요구되는 노인돌봄 실무교육과 우수 장기요양기관 현장견학, 현장실습, 인지활동지도사 자격과정을 경력단절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46일 동안 총 184시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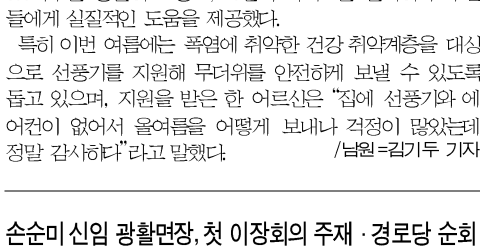
이번 과정은 초고령화에 따른 노인전문기관들이 늘어감에 따라 지역사회 변화와 요구에 맞춰 맞춤형 노인돌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사회 내 구인난 해소에도 기대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동충동, '1일1가구 찾아가는 소통행정' 추진

남원시 동충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차남)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과 주민 소통 증진을 위해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통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충동은 2025년 상반기에 1일 1가구 소통 행정을 통해 856가구를 방문하고 총 1,225건의 서비스를 연계하며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특히 이번 여름에는 폭염에 취약한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풍기를 지원해 무더위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지원을 받은 한 어르신은 "집에 선풍기와 에어컨이 없어서 올여름을 어떻게 보내나 걱정이 많았는데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손순미신임 광활면장, 첫 이장회의 주재·경로당 순회

김제시 광활면 행정복지센터는 손순미 신임 면장이 부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지난 14일 이장회의를 주재하고 지역 내 경로당을 직접 순회 방문하며 본격적인 현장 소통에 나섰다

이날 오전 이장회의에서 손 면장은 여름철 폭염 대응과 안전사고 예방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손 면장은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로 어르신들의 건강이 크게 우려된다"며 "경로당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의 안부를 자주 살펴주시고, 무더위쉼터 운영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 면장은 "아직은 모든 것이 낯설고 부족한 점도 많겠지만, 이장님들과 함께라면 광활면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술술 풀릴 거라 믿는다"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이며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행정 운영 의지를 밝혔다.

이후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직접 인사를 나누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제=곽노태 기자